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3년
2024년 12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8년

제 301 호

창교절 유시문

창종정신 되살려 새로운 도약



종령 지성 대종사

오늘은 현대 밀교의 개척자이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정통 밀교 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하신 지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2년 12월 24일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교상과 사상 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 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하셨습니다.

창종 이후 원정 대성사님께서 만드신 창교가의 가사를 보면, 중생을 건지겠다는 원력이 시방세계 빛으로 뻗어가고, 사명으로 뭉친 교도들은 금강같이 굳은 신심으로 즉신성불의 길을 영원히 전하는 내용에서 당시 원정 대성사님과 선대 스승 그리고 교도들의 창종 당시의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법계에는 길흉 화복 선악존망의 엄연한 기관이 서 있을

뿐이지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지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과 부처의 원칙이다. 착한 인을 지으면 착한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지으면 악한 과를 받는다.”며, 현실의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마음을 닦아 인과로써 돌아보아 그 근본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간의 가치에 따라 사람을 평하지 않고 그의 심중을 깊이 들여다보아 진실한 대답만을 하셨는데, 이는 모든 일이 법신불의 삼밀작용이라는 평소의 가르침대로 밀교의 수행법은 어떤 일에도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창교절을 맞이하여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높이 받들어 시대에 맞는 교화 방안을 개발하여 우리 총지종을 더욱 큰 종단으로 성장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승적자 여러분! 그리고 교도 여러분! 우리 종단도 이제는 긴 잠에서 깨어나 창종 당시의 열화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창종 52주년을 맞이하여 모두와 함께 기뻐하고 자축하는 바이며, 승단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하며, 종조님의 창종 정신과 종단 발전의 서광이 곳곳에 발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총기 53년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종령 지성 합장

제21대 통리원장에 록경 정사 선출

11월 19일 170차 종의회 인준, 12월 27일 임기 시작

불교총지중 제21대 통리원장에 현 통리원 총무부장 록경 정사(총지사 주교)가 선출됐다.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1시 통리원에서 제170차 중앙종의회를 개최하고 새 통리원장에 록경 정사를 선출했다.

록경 정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종단과 교화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종령 예하를 비롯한 우리 스승님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따르며, 총지중이 더욱 번창하는 종단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2003년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전법관정

수계를 수지하며 승직의 길에 올랐다. 부산정각사, 진주 화음사, 서울 총지사 등 종단 주요 사원의 주교를 역임했으며, 제9, 11대 중앙종의회 종의원을 지냈다.

2021년 제20대 통리원 총무부장을 맡으며,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불교기후환경위원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한국밀교학회 부회장 등 종단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사업에 고루 참여했다.

불교총지중은 종령이 지명하고, 종의회에서 인준하는 절차를 거쳐 통리원장을 선출한다. 통리원장 임기는 오는 12월 27일부터 3년간이다.

박재원 기자



신임 통리원장 록경 정사 수행 이력

2003.12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 수료 전법관정수계
2003.12.	통리원 근무
2005.1.	실지사 주교
2009.6.	제9대 종의회
2013.10.	제11대 종의회
2013.12.	정각사 주교
2015.1.	화음사 주교
2019.2.	밀인사 주교
2021.12.	서울·경인교구장(현)
2021.12.	제20대 통리원 총무부장 불교총지중유지재단 이사(현)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현)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현) 총지사 주교
2022.1.	한국밀교학회 부회장(현)
2022.3.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현)
2022.8.	불교기후환경위원장(현)
2023.4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현)
2024.11	제21대 통리원장 선출



룸비니 무우수 아래 '옴마니반메훔' 지난 11월 21일부터 불교총지중 스승과 교도가 함께 인도-네팔을 순례 중인 가운데, 석가 세존의 탄신지인 룸비니 무우수 아래에서 '옴마니반메훔' 진언 염송을 하고 있다. 룸비니는 인도와 네팔의 국경 지역 소나울리를 지나 네팔의 타라이 지방에 위치해 있다.

사진=룸비니 남해 정사

종/조/법/어

신의로서 벗을 사귀고 어진 사람을 질투하지 말며,
강한 자를 겁 없이 제어하고 약한 자에게 자비하여 침해하지 말라.

지 면 안 내

5면
9면
11면

왕생법문 - 뱀의 지혜로 새해를 준비하자!
월정사를 다녀와서 - 벽룡사 오기순 교도
전국 사원 가을 관불 행사

총기 53년 창교절 기념법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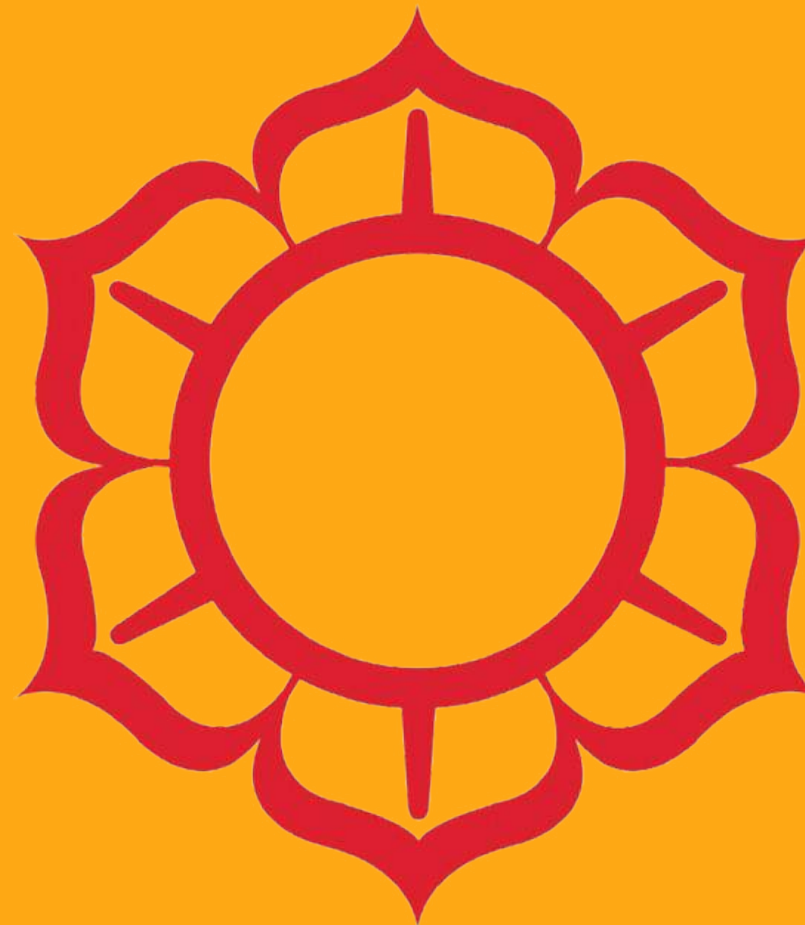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3년 12월 24일(화)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2024 제12회 전국불교합창제’ 성료 총지종 후원, 마니합창단 KBS홀에서 한 무대



왼쪽부터 양유덕, 전추면, 백귀임, 김은미, 최영아, 최혜선 단장, 보명심 전수, 통리원장 우인 정사, 안정애, 임은하, 김현숙, 김옥인 단원.

‘2024 제12회 전국 불교 합창제’가 지난 11월 14일 저녁 6시 서울 KBS홀에서 대망의 막을 올렸다. ‘천년을 세우다’라는 주제

로 진행된 이번 합창제는 전국불교합창단 연합회(회장: 정혜선)가 주최하고 서울지회와 경기남지회가 함께 주관한 행사로 총

지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진각종, 천태종, 태고종, 불교방송 등이 후원했다.

합창제는 총 120분 동안 연합합창단원을 비롯한 1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음의 하모니로 펼쳐졌으며, 총지종은 서울경인교구합창단인 마니합창단(단장: 최혜선) 단원 아홉 명이 무대에 올랐다.

월정사 연꽃합창단의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대구·경기북·충청지회가 참여한 1부 권역별 합창 발표, 2부 칸타타 ‘찬불소리’로 이어졌다. 특히 마니합창단이 참여한 2부 칸타타 ‘찬불소리’는 이 곡의 작곡자인 김회경 지휘로 서울·경기남·대전지회와 매트오페라합창단 등 250여 명의 대규모 합창단, 60여 명의 오스름 민족음악관악악단의 연주로 성악가와 남도창으로 구성된 5명의 솔리스트가 40여 분간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한 예경을 한마음으로 찬탄했다.

서울경인지회, 치악산 명주사 템플스테이

명상, 발우공양, 차담 등 타종단 사찰문화 체험



신정회 서울경인지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1박 2일간 치악산 명주사(주지: 선학 스님)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박정희 지회장을 비롯한 총 13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교구의 전폭적인 지지로 출발부터 귀가까지 스승들이 직접 나서 도왔다.

명주사는 강원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목판본 7점을 비롯해 목판 원본 2천여 점과 고판화 작품 300여 점, 목판 서책 700

여 점 등 모두 3천500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고판화박물관과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판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일 차 오후부터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수련복 대신 입을 목판화 티셔츠 만들기로 시작했다. 직접 판화를 제작해 가슴에 새기는 과정을 거쳤다. 2일 차에는 절 내 석상과 탑, 명상 숲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걷

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명상에 들었다. 이 밖에 새벽예불, 발우공양, 차담 등을 통해 타종단의 사찰 문화를 체험했다.

박정희 지회장은 “이번 체험으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됐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종단 내 사원에서 많은 교도들과 함께 다양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법계월 전수, 효강 대종사 곁으로

세수 95, 법랍 31세로 11월 22일 입적



한평생 진언행자로 정진해온 기로스승 법계월 전수가 지난 11월 22일 세수 95세, 법랍 31세로 입적했다. 법계월 전수는 제5대, 9대 통리원장과 제9, 10, 11대 종령을 역임하며, 종단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효강 대종사의 아내이자 도반으로 삶의 궤를 종단의 운명과 늘 같이해 왔다. 1994년 스승의 길에 올라 중생제도와 교화 발전에 매진했으며, 기로원에 들기 전에는 밀양 일당사에 10여 년간 주석하며, 수행과 전법에 온 힘을 다했다.

장례는 대구전문장례식장 빈소에서 통리원장으로 사흘간 치러졌으며, 24일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스승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계월 전수 영식의 왕생성불과 구경성불을 서원하며 고결식이 봉행됐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오늘은 비록 저희 곁을 떠나 극락정토에 가시더라도 계속해서 종단 발전과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저희를 하루속히 인도해 주시기를 발원한다.”며 추선했다. 법계월 전수는 대구명복공원에서 다비 후 효강 대종사가 계신 밀양 선산에 나란히 모셔졌다.

불교총지종 종무원 법정 의무 교육 실시



2024년도 법정 의무교육이 통리원과 부산 정각사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본산 반야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강좌는 노무법인 에이치 김지은 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성차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등에 관해 교육했다. 법정 의무교육은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중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종립 동해중 개교 57주년 기념식 거행

송인근 교장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 개교 57주년 기념식이 11월 22일 오전 11시부터 학교 해오름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근속 교직원 표창, 대일장학회 장학금 수여, 학교장 기념사와 이사장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사장 우인 정사는 탁상달 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오늘은 동해중학교가 개교 57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자축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날이다.”라며 “새로운 동해중학교의 역사 창조에 동참하고 계시는 동해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송인근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해중학교의 57년 역사를 돌아보면, 매 순간이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라며, “교육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그리고 그보다 먼저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근속 교직원 표창 수상자와 대일장학회 장학금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근속 10년 교사 신동진, 교육공무직 진미영, 김정희(이상 3명) △장학생 3학년 이경원, 1학년 조혜성, 박정민, 양원규, 이혜성(이상 5명)

한편 대일장학회는 동해중학교 전 이사장 인선 정사가 인재발사를 위한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해 설립한 장학회로 첫해인 2021년도부터 매해 개교기념일을 맞아 5명의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석관실버, 흥겨워樂(락) 뮤직 페스티벌

어르신 300여 명 초청
2025년 새해 응원 메시지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 달 21일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하여, ‘흥겨워樂(락)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성북미디어문화마루 4층 꿈빛극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팝페라와 대중가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선보이며,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를 위해 ㈜주비스튜디오에서는 핏애프로틴 300개를 후원하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도 기념품을 지원했다.

행사는 팝페라 듀오 ‘도시나무’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태



수 시의원, 김영희 석관실버복지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이루어졌다. 내빈들은 인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수고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2025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2부에서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조성린이 ‘희로애락’을 주제로 한 트로트 공연

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이어 히든싱어 우승자인 김희석이 ‘막걸리 한 잔’, ‘끝까지 간다’ 등의 명곡을 열창하며 어르신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 미스트롯 3의 ‘가수 품금’이 등장, 유쾌하고 즐거운 무대 매너로 어르신들을 사로잡았다.

문의: 02-957-9923

지혜의눈

불교가 필요한 사회

천국은 인간 욕망이 최대로 반영된 모습
최고의 경지인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경쟁이 가진 효율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현재 우리의 문명이 도달한 수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서로 죽이고 죽는 행위도 문명의 진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 집단이나 종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제노사이드(genocide, 인종 말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이를 막으려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왔습니다. 정치제도는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절해 해결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정치보다 더 핵심인 제도는 종교입니다.

현재 세계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본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人)은 아랍화 된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우 민족이 분화된 원인이 종교입니다. 유대교를 믿던 이들이 이스라엘로 이어졌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쪽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을 보면 종교가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전파되고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종교로 유대교,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수니파, 시아파 이슬람교 등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전쟁이나 제노사이드는 모두 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근대 초기 유럽의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 전쟁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도 종교의 흔적이 엿보이는데, 독일 나치의 군복에

는 십자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십자군이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 넣은 행위와 다르지 않죠.

한편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혼란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막장 드라마입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지도자를 뽑고, 그에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가 오히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탐욕이 집중되고 충돌하는 칼데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인류 문명이 진화되어 왔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대되면서 인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소비를 통한 경제 발전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부산물로 쌓인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였지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정당화하여 왔습니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불교와 도교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은 인간의 욕망이 최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교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인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은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그 욕망이 꺼진 상태에 이르려고 불교도는 수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불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전 지구적 전쟁 위기나 환경 위기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현대사회는 불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중생 구제 사명 안다면 무량복 짓는 일 고행 아냐”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3절 각종 논설

2. 고행(苦行)으로 작복(作福)

불교는 생사열반(生死涅槃), 즉 살아서도 안락(安樂), 죽어서도 안락, 고행(苦行)은 세간(世間) 고통(苦痛)을 소멸(消滅)시킨다. 불교의 고행은 세간 수백 배(數百倍)의 고통을 능히 소멸(消滅)하느니라. 이러므로 세간을 관(觀)하는 것도 역시(亦是) 그렇다. 고잔감래(苦盡甘來)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비단 현세의 고통만 소멸시킬 뿐 아니라 또한 내세의 고통도 소멸시키는 고로 내세(來世)의 극락(極樂)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석존(釋尊)은 나무 밑에서 고행하여 일체 중생에게 능히 복을 주고 고통을 소멸케 하였느니라. 악을 지어 고통 받는 그 고통을 다 해탈(解脫)시키고 고행하여 선(善) 짓는 것은 그 복이 무량하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숨이 턱에 차게 달리거나 땀을 쏟으며 가파른 산에 오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힘은 들지언정 공부에 매달리거나 고된 훈련에 매진하는 사람이 있다.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는 것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고역인 사람도 있다. 성향에 따라 다르고 동기와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고,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소박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사회에 공헌하고자 어떤 한 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찾고 인격을 도야해 성인 내지는 부처의 경지에 이르고자 애쓰는 사람도 있다. 삶의 목표와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즐거움과 괴로움은 더더욱 달라진다.

고통과 고행은 뉘앙스가 살짝 다르다.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는 느낌이 들고, 고행은 무언가 목표가 있어 스스로 힘든 상황을 자초하고 감내하는 느낌이 강하다. 어쨌든 미래의 결실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달게 받아들이는 한, 고통은 고통에 머물지 않고 거름이자 자양분이 된다.

『초발심자경문』에서는 “자신의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알면 다른 이가 성인과 같이 믿고 공경할 것이고, 하기 어려운 수행을 능히 해낸다면 부처님과 같이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고행 자체가 길은 아니다. 부처님께서서는 고와 낙에서 모두 벗어나 중도를 가라 하셨다. 고행이 곧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 욕심을 버리고 아상을 여의는 것이 핵심이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부차적이다.

누더기를 걸치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장좌불와를 하고 무문관 수행을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

이고 존경스러운 일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아상과 욕심을 버리고자 함이고, 아상과 욕심을 버려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또한 가식일 뿐이다. 마음의 살림살이가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질적인 욕망을 절제하면서도 그런 스스로에 대한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수행을 오랫동안 했다는 분 가운데에도 일반인을 한심하게 바라보거나 무시하는 일도 적지 않다.

아상을 여의고 삼독심이 없을 때라야 진실한 수행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라면 저절로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살 것이고, 그러면서도 누구도 마다하거나 가리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넉넉하게 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따르는 고행은 전혀 고행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다.

위나 장에 탈이 나면 평소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을 멀리하게 된다. 튀긴 음식,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달콤하고 상큼한 맛깔스런 간식이 부담스러워진다. 몸이 감당하지 못하니 평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심심하고 맹탕인 음식을 먹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다 보면 아무 맛도 없는 담백한 맛의 매력을 조금씩 알게 되기도 한다.

그동안 먹었던 음식 가운데 진정 내 몸에 좋았던 것이 얼마나 될까? 진정 나를 위해 먹은 게 맞기는 한가? 음식뿐이 아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고 즐기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이 실제로는 그다지 이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으니 더 늦기 전에 내 몸 내가 아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고 자신을 위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사람과 자주 만나 여행도 다닌다.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바빠 산 세월이

“

고행은 세간 수백 배의

고통을 능히 소멸...악을

지어 받는 그 고통을 다

해탈시키고, 고행하여 선을

짓는 것은 그 복이 무량

”

허망하게 느껴져 이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왔는지 모르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살이, 정신없이 와서 흐릿하게 살다가 혼미하게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때 필요한 것이 수행이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슬하게 고통을 받아왔던가? 그저 상황이 닥치는 대로 웃고 울며 이리 휩쓸리고 저리 넘어지며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허탈해하며 살아왔다. 남이 다 그렇게 사니까 덩달아 그렇게 살고, 별 뽕족한 수가 있나 하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나름대로 맞는 길이라 여기며 살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다.

소를 키우는 다니아가 우기를 앞두고 철저히 대비했다며 부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다. “밥도 지어 놓았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히 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움막의 지붕도 이엉을 잘 덮어놓았고 밤에 밝힐 불도 지퍼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성내지 않고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 쉬리라. 움막은 드러나고 탐욕의 불길은 꺼져버렸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소서.”

열심히 생활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세상 살이의 두려움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분노와 욕심까지 벗어난다면 그야말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겁내거나 무서워할 일은 없을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도 보살은 연을 것이 없는 까닭에 반야바라밀에 의지한다고 하지 않던가?

수행자의 고행이 실은 고행이 아닌 것도 이 때문이다. 욕심을 떠나고자 하니 많이 가지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니 거둬 기도하고 수행한다. 세상의 이치를 알면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사뭇 달라진다. 무상하니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을 알면 그 무엇에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면 한 시간이라도 더 앉아서 공부하고 기도하려 들 것이다. 나와 남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다가가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 범희선열의 기쁨, 보시 공덕의 행복, 중생 구제의 사명을 안다면 선을 짓고 무량한 복을 짓는 일이 고행이 아니라 여기며 흔쾌히 정진할 것이다.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요	일	9시 30분 ~ 14시
토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뱀의 지혜로 새해 을사년(乙巳年)을 준비하자!

선조들이 해마다 육십갑자로, 또는 동물로 한 해를 표시해서 생활에 활용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천지자연의 이치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전통 속에 간직해 왔습니다.

육십갑자는 열 개의 글자로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천간과 열두 개의 글자로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지지를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지지는 동물에 비유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육십갑자는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고, 운명을 예지하는 점술에도 사용됩니다. 계절이나 달을 표시하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쓰여 왔습니다. 또 육십갑자는 의술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기나 서기 대신에 육십갑자로 표시했고 농사의 지침으로도 삼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육십갑자 중 뱀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한 동물로 간주해 왔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 보통 뱀은 간교한 동물로 알려졌지만, 우리 선조들은 뱀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집 안에 있는 구렁이는 ‘업구렁이’라고 하여 재산을 지키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고, 이 구렁이가 집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불교 경전이나 설화 가운데 나쁜 업을 지은 과보로 뱀의 몸을 받은 경우가 있고, 우리 육신에 대한 비유로서 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조선 시대 설화입니다.

금강산 돈도암이란 암자에 수십 년 동안 수도하여, 곧 견성하게 될 홍도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병이 들어 며칠간 방에만 있다가 그날은 하도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 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옷을 벗어서 한편에 놓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벗어놓은 옷을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에선 간교한 동물, 우리는 신성시... 고정관념 없어야 진실 발견”

그러자 이 스님은 화가 나서 신경질을 부리며 “부처도 소용없고, 팔부신장이란 것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나처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도 그렇고, 바람까지 불어서 병든 나를 괴롭히니, 이래서 불교에 무슨 영험이 있다고 할 것이냐!”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팔부신장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꿈속에 토지신이 나타나서 현몽해 꾸짖었습니다.

“네가 중노릇하고 공부하여도 헛수고노라. 불자는 자비로 집을 삼고, 인욕으로 옷을 삼으라고 하였는데, 그까짓 병을 좀 앓고 바람에 옷을 날렸다고 진심을 내다니, 그리해서 무슨 공부를 하였다고 할 것이냐? 부처님도 정한 바 업은 면하지 못하고 과보를 받으셨거늘, 너 같은 초발심 비구가 무엇이 그리도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병이 난 것은 네 업보요, 바람이 분 것은 도량신이 네 공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인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려 팔부신장과 도량신을 불안케 하니 그 무슨 체통 없는 것이냐?”

그러더니 느닷없이 구렁이 껍데기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렁이가 된 홍도 스님은 돌담 속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수행승 한 분이 돈도암을 찾아왔는데 서까래 같은 굵은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에서 기어다니고 있으므로 한편으로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이 합장하며 ‘나무대방광 불화엄경’을 세 번 외운 뒤 ‘약인욕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라는



『화엄경』의 요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이 말은 ‘만일 사람이 삼세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모두 마음으로 지은 것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구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꼬리를 아궁이에 넣어 재를 묻혀서 부엌 바닥에 글을 쓰더랍니다. 그 내용은 구구절절이 성낸 것을 후회하고 진심을 내지 말도록 다른 이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합니다.

이 설화는 우리에게 탐(貪)·진(瞋)·치(痴)

삼독 가운데 진심, 곧 성내는 것이 얼마나 독이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보로 뱀이 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데 한결같이 좋지 못한 업을 지어서 뱀이 된 이야기입니다.

『독사비유경』이나 ‘안수정등(岸樹井藤)’에 나오는 비유에서 뱀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4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애지중지하는 이 육신은 본래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인연 따라 일시적으로 모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독사를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뱀에 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였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본래 선과 악이 따로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뱀이 징그럽다고 하지만 뱀탕을 즐기는 사람에게서는 보약이고, 땅꾼에게는 밥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모두 불성을 소유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본질과는 다르게 악의 화신이 되기도 하고 선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뱀을 사탄이라고 하지만 아프리카 어느 종족은 뱀을 신으로 섬겼고 우리 조상도 구렁이를 ‘업’이라고 하여 재물을 불러주는 좋은 신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뱀은 뱀이지 사람이 뱀을 좋게 본다고 좋아지고, 나쁘게 본다고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진실을 파악하는데 선입관이나 관념이 오히려 방해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는 “지극한 도를 깨닫기는 어렵지 않다. 오직 차별을 깨릴 뿐이다. 단지 스스로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도는 명백히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승찬’이라는 중국의 스님이 ‘신심명’에서 밝힌 유명한 법문인데, 사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나 앞일을 예견할 때나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뱀은 겨울잠을 자는 파충류입니다.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습기입니다. 몸에 털이 없는 동물이므로 혹한을 견딜 수 없어서 겨울 한 철을 땅속에서 죽은 듯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활입니까? 뱀이 한겨울 땅속에서 슬기롭게 봄을 기다리듯, 조바심 내지 말고 느긋하게 묵묵히 기다리며 일해 나갈 줄 아는 지혜, 자기를 다스리는 생활, 이웃을 두루두루 보살피는 생활, 후회하지 않은 보람된 생활을 꾸려가도록 합시다.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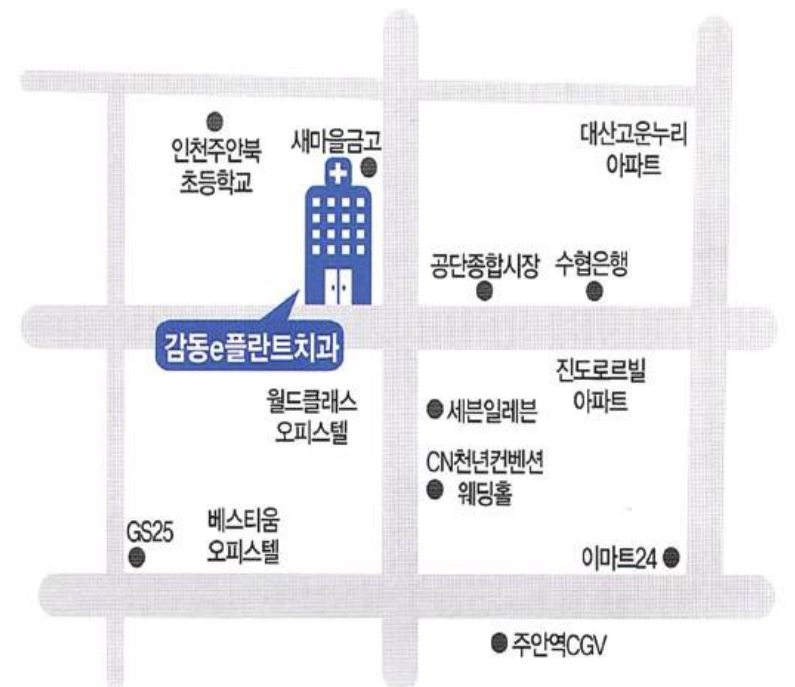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들니 | 사랑니발치

1975년 새해 불공 총본산 서원, 3년 만에 총지사 설단불사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7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수 74세)

대성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대성사가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다.”고 전한다. 남에게 신통을 자랑하거나 신비를 내세우는 일은 결코 없었지만, 어떤 결정이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지혜의 폭과 깊이를 수궁할 수 있었다. 가정사와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빙긋 웃으며 불공을 권하고 “법계가 드러내는 법을 따르라.”고 했지만, 앞을 내다보는 실마리를 주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일본의 패망, 남북의 분단, 한국전쟁의 발발과 복전 등을 예견한 일은 친족이 생생히 기억하며 증언하고 있다. 늘 세계의 소식을 남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대비했던 일은 주변인이 보고 아는 대성사의 또 다른 모습이다.

대성사의 해안으로 오늘의 총지종을 이룬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종단 간판을 건 성북선교부는 건물이 좁고 종교적인 용도로 쓰기에 부적합하였기에 종단의 총본산이 될 만한 곳을 찾아 세워야 했다. 여러 곳이 거론되고 각각 이유와 이점이 있었으나 대성사는 당시에는 강 건너 멀고 먼 변두리 땅이었던 지금의 총지사 터를 접적었다.

1960년대 초까지는 광주군에 속했고, 총지사 터를 구입한 1975년까지는 성동구의 일부였다. 그야말로 허허벌판으로 배추밭과 과수원이 있던 황무지여서 지명조차 없이 영등포의 동쪽이란 뜻으로 ‘영동(永東)’으로 부르던 곳이다.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면 막 개발이 시작된 영등 땅이 나오고, 굽이굽이 한참을 더 가야 역삼동 근처에 내릴 수 있었다. 주변은 논밭

이라 비가 오면 진창길로 걸을 수조차 없었던 땅이고, 멀지만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생긴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말죽거리 뒷방 아다리라는 옛 지명을 가진, 볼 것 없는 곳이었지만, 대성사는 이곳이 한국 밀교의 미래를 열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1975년 새해 불공으로 총본산 건설을 서원하고 교도의 힘을 모아 3월 28일 대지 328평을 매입했다. 그 후 인근 대지를 더 사들여 지금과 같은 터를 만들었다.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후세에 가치가 남을 일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길을 열어가는 이의 특징이다. 역삼동 총본산 건립은 당대의 눈이 아닌, 미래를 위한 행원으로 내린 결정이다.

대지를 다 확보한 5월 31일 총본산 건설 기공식을 열었다. 이미 전국 곳곳에 진각종 심인당을 지은 경험이 있던 터라 대성사의 지시와 감수로 공사가 진행됐다. 자재 하나 하나까지 일일이 챙기고, 공정마다 잘 진행되도록 종단의 힘을 모은 덕에 건축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기공식 5개월 만에 대부분의 건물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대성사는 공과 사에 엄격하여 건축을 맡은 이는 늘 긴장을 멈추지 못했다. 평소 강조하던 말 때문이다. “공중의 일을 위하여서는 생명을 바치고 사사로움에 이용하지 말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덕을 베풀고 자기의 이익은 취하지 말라.” 공사에 장난을 치거나 주어진 지를 이득을 얻으려는 이는 대성사의 이런 태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10월 27일에 총본산 건물 옥상에 대일여래 비로자나불의 지혜와 광명을 드러내 보이는 원상을 세웠다. 세상에 정통 밀교 종단의 위상을 펼쳐 보이는 외형적인 기반이 완성된 것이다. 공사가 진행될 때 대성사는 그곳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건축을 독려하고 마장이 없도록 수시로 불공을 올렸다. 치밀한 성품 그대로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도록 살핀 덕에 원상을 올린 며칠 후인 11월 4일 교도와 전국 스승이 모여 본관 건물 상량식을 성대히 치렀다.

12월에는 총본산 마당에, 불사에 동참하여 뜻을 모은 교도의 정성을 새겨 성불탑을 세우고, 드디어 12월 27일 총지사 2층 서원



서울 역삼동 총본산 총지사 건립 중 대성사와 스승, 교도들 모습.

당 불단이 개설되었다. 1978년 1월 19일 건축불사를 준공하고, 4월 18일 총본산 총지사의 설단 불사를 봉행했다. 이로써 천 년을 넘어 맥을 이은 한국 밀교가 다시 천 년을 이어갈 터전이 세워진 것이다. 명실상부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참된 도량’이 세상을 향해 넓은 품을 열었다.

대성사는 항상 총본산을 지켰다. 1층 계단 아래 의자 하나를 두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늘 그 자리에 앉아 듣고 나는 교도를 지켜보고 격려했다. 급한 일이 일어나 총지사로 달려오면 달리 찾아볼 필요 없이 곧바로 대성사를 만날 수 있었다.

누구나 마음에 담긴 혼란과 생활 속에서 벌어진 소소한 일까지 마음속 사정을 대성사에게 털어놓으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잠시 생각에 들었다가 한결같은 가르침을 남겼다.

“무엇이든 간절히 법계에 물어보면, 감응이 있다. 밀교행자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



1978년 불교총지종 총본산 총지사 준공 당시 전경

지 않고 마음의 심지를 지켜 법계의 응답대로 행해야 한다. 불공을 잘 드리면 마장은 견고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으니, 사람의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법계의 진리가 비추는 바를 따르면 될 것이다.”

그 말 말미에 던지시 살피 지켜야 할 바를 일렀다고 한다. 또한 현실의 고난을 겪는 이에게는 마음을 닦아 인과로써 돌아보아 그 근본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남북불교 교류사업 등 불교계 대표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03. 재가 불교종단의 위상 제고

남북불교 교류의 시작

1995년 대홍수 이후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자,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997년부터 범국민적인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시작했다.

창종 후 줄곧 ‘부국강병 국태민안’과 ‘조국 평화통일’을 공공서원으로 삼아 밀교 특유의 진화국가법으로 호국안민을 실천해 온 종단은 사상과 체제를 떠나 굶주리는 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인류애로써 북한 동포 돕기 운동에 적극 나섰다.

종단은 1999년 11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의료 1만여 점을 비롯한 생활용품 북한에 전달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약칭 종단협) 산하 26개 종단이 전개한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도 동참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매개로 남북불교 교류 사업이 재개되어 2000년 3월 종단협과 조선불교도연맹(약칭 조불련)의 북경 실무자 회의에 종단의 화령 정사, 인선 정사가 참석, 남북불교 교류와 지원 사업의 물꼬를 텄다.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2001년 12월 20일, 2002년 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종단협과 공동으로 북한의 흑한 지역인 자강도와 량강도의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어린이에게 방한복과 내복 등의 월동용품과 학교 급식용 밀가루를 전달했다. 2002년 3월 종단협이 통일부로부터 불교계 대북 지원 지정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월동용품과 급식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자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개발 합

의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남북 협력이 이루어졌다. 불교계의 남북 교류도 급진전을 이뤘다. 조불련은 그동안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불교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종단협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과 스님과 종단의 해안 통리원장 등 5인의 실무대표단은 2002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묘향산 보현사 공동 법회

회의에 앞서 4월 30일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종단협 실무대표단, 조불련 임원 등 20여 명의 북한 스님, 그리고 1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불교도 공동 법회를 봉행했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의 사찰을 방문한 후 실무대표단 회의에서 ① 6·15 남북 공동 선언의 기본적인 준종 및 실천 ② 평화 통일을 위한 불교도의 공동 노력 ③ 불교도의 상호 교류 확대 ④ 부처님오신날과 6월 15일, 8월 15일 동시 법회 추진 및 공동 발원문과 축원문 발표 ⑤ 북한 사찰 단청불사와 신계사 복원, 동포애적 참 보시행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날 남북불교 교류의 창구를 종단협과 조불련으로 일원화하기로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날의 합의는 6월 14일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범사에서 ‘6·15 공동선언 2돌 기념 조국 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동시 법회’를 봉행하는 것으로 이행되었다.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공동 발원문에서 “불자들이 앞장서 민족 화합과 평화를 위한 실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힘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원했다.

서울, 8·15 민족 통일 대축전

남북한 통일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2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8·15 민족 통일 대축전이 개최되었다. 전년도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한 최초의 민간 공동 행사 8·15 민족 통일 대축전에 남측 대표단 337명이 참가한 데 이어 이날 북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에서는 지성 정사, 화령 정사, 인선 정사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발원했다.

2003년 3월 2일 분단 이후 최초로 ‘3·1절 기념 통일 기원’을 위한 남·북 불교계 합동 법회가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에서는 황병준 부위원장 등 조불련 관계자 6명, 남한에서는 종단의 법공 통리원장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하여 평화와 통일을 향해 마음을 모았다.

이날 법회에서 황병준 조불련 부위원장은 “이 땅에 대결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불교도들은 한마



총지종은 불교계를 대표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사진은 2002년 종단협의 북한 흑한지역 어린이 월동용품과 북한 어린이 급식 지원.

음 한뜻으로 부처님 전에 간절한 서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공식 행사에서 법공 통리원장은 불교계를 대표해 황병준 조불련 부위원장에 선물을 증정했으며, 법회 후 만찬에서 황병준 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불교도에 대한 총지종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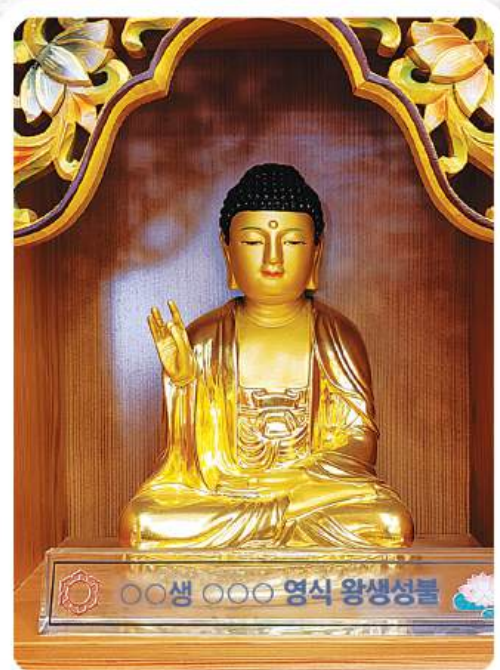
평양, 개천절 민족공동체 행사

2003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천절 민족공동체 행사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법공 통리원장과 지성 총무부장 등 불교계 대표단을 비롯하여 종교인 300여 명이 참가

한 가운데 10월 3일 평양 단군릉 앞에서 개천절 기념식을 거행하고 남북 합동 문화 공연과 통일 기원 기념식수 행사를 했다. 남북의 종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을 염원함으로써 민족 화합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밑물을 놓았다.

종단은 종교계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여 북한 동포 돕기 운동과 남북 불교 교류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종단의 포교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불교 대중지 월간 <불교>의 풍운

일제 강점기 불교계를 이끌었던 <불교(佛敎)>(1924~1944)는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발행한 월간 불교 잡지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사찰령에 따라 전국 사찰을 30본말사의 체제로 재편하였고, 30본산 주지들은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만들고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1920년대 초 일시 폐간되었다가, 1924년 다시 통합하여 불교 포교와 본산 간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월간 <불교>를 창간하였다. <불교>는 종교 기사를 다룬 논설, 불교개혁론, 경전 번역, 전통문화, 불교 문학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총망라되어 있어 근대 한민족의 불교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발행 책임자를 보면 창간호부터 83호가 지는 권상자로 말았고, 84~85합호 이후부터 종간호까지 한용운(韓龍雲)이 맡았으니, 당대의 지식인이 <불교>를 이끌었다 할 수 있다. <불교>는 일본의 개방에 따른 불교학 연구의 현대화 동향을 일찍이 수입하여 대중지임에도 빨리어·산스크리트어를 도입하는 등 전문적이며 깊이 있는 불교학을 소개했다. <불교> 제18호(1925.11) 동아 불교대회(東亞佛敎大會) 기사를 보면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모인 현대 학술대회 못지 않은 연구 발표가 소개되었고, 대장경 연구와 관련해 산스크리트 패엽장경을 시작으로 빨리, 한글·한문, 티베트, 몽골, 만주장경 뿐만 아니라 서하어, 돌궐어, 구자어, 우디아나 장경, 니할리어 등 희귀 대장경 연구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밀교와 관련해 『실담집』·『진언다라니집』·『불교만다라』도 그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다. <불교> 제14호(1925.8) 기사를 보면 불교 수행이 동서남북 각기 문이 다르지만 들어가고 나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처럼 구경처에 성불에 이르는 것은 다 같다고 하였고, 이어 종파의 수행문을 열거하였는데 소승에 수관행(修觀行), 선종에 좌선, 천태종에 지관, 현수종(賢首宗, 화엄종)에 법계관, 법상종에 유식관, 정토종에 심유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마지막 밀종(密宗)에는 아자관(阿字觀)이 있

다고 하였다. 권상로는 밀종을 밀교 종파의 줄인 말로 파악하였으며, 적어도 밀교 수행으로서 아자관의 면목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불교> 제54호(1929.12)의 아자관과 관련한 다른 기사를 소개하면, “(불교는) 일자일구(一字一句)라도 그 묘한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니 그것은 경전의 제목만으로 불교의 요점을 알 수 있으며 부처의 명호에도 족히 대요를 갖추며, 아자본불생(阿字本不生)의 아자(阿字) 일자에도 갖추어져 있다 하고, 선종에서는 한 침묵으로도 역시 언어 죽고 사는 데 자재하고 주고 빼앗는 것에 종횡무진한다”라고 하였다. 일자에 미묘한 이치에 계합하는 뜻에서 밀교와 선이 다르지 않은 선밀불이(禪密不二)의 이치를 논함은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교> 제4호(1924. 10)에서는 무능거사 이능화(李能和, 1869~1943)가 기고한, 조선과 일본의 대장경 외교를 다룬 <고려판 대장경과 일본의 청구(請求)>라는 글을 볼 수 있는데, 기사의 내용은 조선 조정이 들어선 이후 일본이 종종 대까지 줄기차게 대장경을 요구한 사실과 송유역불 정책으로 대장경을 쉽게 내주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선왕들은 대장경을 주지 않기 위해 갖은 핑계를 대어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세종 대의 경우 당시 일본 사승(使僧) 게이시(圭誓)가 단식까지 하며 결사 요청하였고, 이 와중에 범자대장경판과 밀교대장경판이 대신 일본에 보내지게 된 사실을 조선왕 조실록 원문과 함께 게재하였다. 무능거사는 게이시가 무엇이 조선불교의 보물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대마도 성주와 짜고 만약 대장경판을 받지 못할 경우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을 세종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여 압력을 넣은 사실을 거론하였다. <불교>는 일본 정부에 휘둘린 사찰 연합체의 기관지였지만, 대장경과 관련한 간접기사에서 일제에 저항했던 당시 불교계 지식인들의 의식과 배짱을 엿볼 수 있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조직·체계 갖추지 않으면 유사 밀교”

불교총지종 창종주 원정(苑淨)의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 2. 역사관과 준계진언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 2. 자주정신과 의궤 전승
- V. 결어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1) 불교사와 밀교경전
(지난 호에 이어) 원정의 밀교사관을 볼 수 있는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인용에서 볼 수 있다.

불멸 후 팔백년대에 남천축 철탑 속에서 십만 송의 밀교 경계가 출현하여 대일여래, 금강수보살, 금강지, 선무와 등에 의하여 해과에게 전하고, 해과로부터 신라에서는 해일과 불가사의가 수법하였고, 일본

에서는 공해가 수법하였으나, 공해보다 해일이 먼저 수법하였으며 범행이 되는 것이다. 한편 신라 시대의 해통 국사(총지종의 개조)는 입당하여 선무와 삼장으로부터 수법하였으므로 공해보다는 훨씬 먼저가 되는 것이다. (『종조법설집』, p.17)

밀교사에 대한 원정의 인식은 인도불교와 동아시아를 경유한 한국불교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 특히 총지종의 종명에 대해 신라에 뿌리를 둔 총지종과 동일한 독음을 적용하면서 현대의 변한 환경에 맞추어 총지종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회당과 원정은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총지종과 진각종 창종을 이끌었다. 또한 밀교의 정체성과 생명을 표현하는데 도량(道場)이나 의궤(儀軌)를 통해 의식, 혹은 의례가 필수불가결함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원정은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밀교의 신앙은 대체로 대일신앙, 관음신앙, 약사신앙, 지장신앙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밀교에 입문하여 어느 정도 수행이 궤도에 오르면 결연관정이라는 의식으

로 자기 신앙 대상인 불보살과 인연을 맺는 것이다. 밀교의 전달은 자격이 있는 사리가 면면상대하여 정식으로 수여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조법설집』, p.17)

원정의 밀교도량이나 전법에 대한 인식은 정통밀교의 의식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대일신앙을 제외하면 관음·약사·지장신앙은 한국불교 수행의 중심을 이루는 본존들이다. 민간에서는 주로 염불이나 공양수를 떠놓는 치성을 떠올리게 되지만 고려시대만 해도 의궤에 입각한 도량의 개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원정은 “정통적 밀교는 반드시 조직과 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유사밀교다. (『종조법설집』, pp.10~11)”라고 하여 향후 종사로서 밀교 중흥의 역사를 일으킬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

원정은 종단의 밀교 인식이 향후 종단의 행보와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법어들을 도처에 볼 수 있다. 원정의 밀교 인식은 밀교의 판도를 동아시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불교에서 시작된 석존의 권위와 삼장, 그리고 이를 지지한 나란다사의 정통을 고려한 불교사의 전체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성준 박사

육자진언 수행법과 수행체계 총망라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법장 지음 | 신국판 | 324쪽

출간일 2024년 11월 6일

값 2만 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티베트불교 전통의 육자진언 수행법과 수행체계를 총망라한 국내 최초의 육자진언 연구서다.

제 I 장에서는 티베트 경론에 나타난 육자진언의 전거를 밝히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네 가지 주제, 즉 육자진언의 기원, 공덕, 상징적 의미, 수습법(修習法) 및 염송법(念誦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전 분석을 통해 육자

진언은 부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명호주의 왕으로서 그 수행의 공덕이 수승하며, ‘보리심’과 ‘공성을 요해하는 지혜’를 상징하고 있음을 밝힌다.

제 II 장은 티베트 경론을 중심으로 한 육자진언의 수행체계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현시대에 적합한 수행법으로 정립하고 있다.

육자진언 ‘옴 마니 반메 흠’은 단지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염송하기가 용이하다. 업과 번뇌에 물들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부처의 경지로 이끄는 수승한 방법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현대인들이 쉬우면서도 바른 수행법을 찾아 일상의 평온함과 행복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목표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펼쳐 읽고,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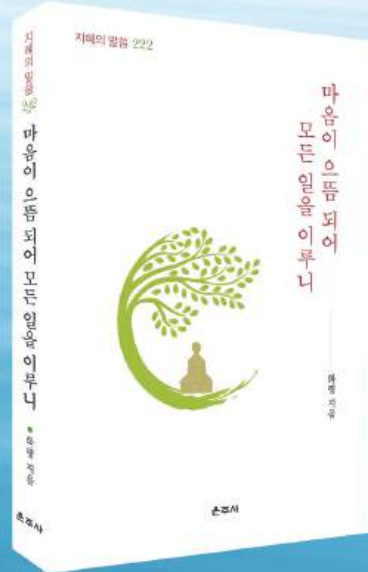
마음이 으뜸 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경전 말씀과 불교의 가르침 중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렇지만 깊은 성찰과 여운을 주는 222개의 가르침을 가려뽑고 간단한 단상을 덧붙였다.

이 책은 온갖 욕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가르침들은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화령 지음/사륙판/232쪽/값 12,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오대산 월정사 관불을 다녀와서

‘두 나무가 한 나무 되어 서로 보듬어 안고’

벽룡사 오기순 교도

“11월 2일 토요일 강원도 오대산 7시 30분 출발”.

인터넷에 공지가 올라왔을 때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제시간에 벽룡사에 도착하였습니다. 11월 날씨답지 않은 포근한 아침이라 보살님, 각자님들 모두 가벼운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사원에서 미리 준비해 둔 봉고차 두 대에 각각 나누어 몸을 싣고 출발한 ‘벽룡사호’는 순조롭게 긴 차들의 대열에 끼어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11월의 따뜻한 햇살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느껴지는 이른 아침, 오늘 하루 무사히 산행을 잘 마칠 수 있게 전수님 집공 하에 간단한 불공을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완연히 가을 단풍으로 물든 붉거나 색토란 산들을 만끽하며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준비해 온 간식을 먹으며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있는 동안 차는 어느덧 문막 휴게소를 지나 진부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 현경옥 보살님 댁에 도착했을 때는 떠나올 때와는 달리 예상치 못했던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 주시는 보살님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집안으로 들어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마주하니 소중한 인연 사이에서 잠시나마 쉬어 갈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정오가 될 즈음 우리의 진짜 목적인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쪽 이어진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돌고 돌아 족히 한 시간은 걸려 상원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원사 대웅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우산을 쓰고 조심조심 올랐습니다. 전수님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참배하고 내려가는 길은 계단을 피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 사이 전수님은 공 보살님을 기다리고 찾느라 늘 애태우셨습니다. 공 보살님은



관불에서 함께 한 이평원 각자, 오기순 보살, 묘원화 전수(왼쪽부터)

중국에서 홀로 한국으로 와 일하시는 공위메이라는 분입니다. 우연히 벽룡사 간판을 보고 찾아오셨고, 처음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전수님께서는 혹시나 공보살님을 잃을까 봐 세심하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차를 뒀습니다. 일행 중 일부는 섭다리에서 월정사 주차장까지 걸어 내려오는 데 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저와 전수님, 각자님 한 분은 차를 타고 월정사 주차장까지 와서 전나무 숲길을 2km 넘게 산책하다가 상원사에서 걸어 내려오시는 보살님들과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보니, 혼자서 하느로 대쪽같이 쪽쪽 뻗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어 서로 보듬어 안고, 한 나무가 또 두 나무가 되어 의지하며 하늘 높이 같이 가는 모습이 꼭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숙연했습니다.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저녁 공양을 위해 오대산 산채나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공양은 행대호 보살님의 각자님이 내신다고 일찌감치 예약한 상태라 식당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각자님들은 곡주 한 잔씩 나누어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

누었고, 스승님들은 가는 곳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과 유쾌한 미소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여행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다시금 차에 올랐습니다. 어느덧 캄캄해진 강원도 산야를 바라보며 일부는 상념에 잠기기도 하고, 잠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차는 쉽 없이 달리고 또 달려 휘황찬란한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벽룡사에 도착하니 밤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벽룡사에서 다시금 산림동 쪽과 반대 방향의 차량 두 대로 나누어 태우고 정사님과 김대현 각자님이 일일이 모셔다드셨습니다.

저는 수원행 전철을 타고 집에 오니 밤 10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반겨 맞아 주는 각자님께 오늘 이야기를 하며 출발할 때 메고 간 가방을 풀어보니 왕승훈 보살님의 정성이 담긴 봉지에는 과자며 약밥이며 짭은 감까지, 또 낮에 현경옥 보살님이 써준 축축한 까만 콩이 알알이 박힌 백설기와 팔이 듬뿍 든 찜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벽룡사 교도들의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여행은 정말 알차고 보람차고 즐겁고 결코 잊지 못할 여행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억하고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 이 글을 남깁니다.

성도합니다.



마음공부의 첫걸음은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 때, 물에 비친 모든 형상은 그 물결의 모양에 따라 일그러지고 비뚤어진다. 그러나 물결의 파문(波紋)이 그치고 그 물이 본래의 고요하고 맑은 물로 돌아올 때, 거기에 비치는 모든 것은 참모습을 바르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파문이 일지 않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수양이자 공부이다.

파문이 일지 않는 본래의 마음은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겸손은 허심(虛心)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세상살이에서 모든 일의 중심에는 늘 마음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마음의 힘은 용심법(用心法·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또한 나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인과법칙(因果法則)이 작용한다. 좋은 원인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 즉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다. 사람의 본래 마음에는 요란함, 어리석음, 잘못됨이 없는데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상황이 나와 맞지 않아 의견이 상충할 때 요란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서 원래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잃어버린 본래 마음을 회복하면 다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된다. 죄와 복, 즐거움과 고통은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 씀, 즉 용심법(用心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윤동주(尹東柱, 1917~1945)의 <서시>이다. 이 시에는 맑은 마음과 경건하고 겸허한 인생관이 깃들여 있어, 읽는 이의 가슴을 울려 준다. 윤동주 시인은 거울처럼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맑게 닦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간직하도록 하자.

그 공부의 첫걸음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편견이나 교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는 더 더욱 없다.

‘사람은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받는다.’

항상 ‘화안보시(和顔布施 : 얼굴빛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남에게 보시한다)’로 부드럽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어 보자. 쉽게 성내지 않고, 그렇다고 쉽게 깔깔대지도 않는 은근함이 사람을 이끄는 매력 아닐까? 자신의 미숙함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닦할 수가 있겠는가? 바쁘고 여유 없는 생활이지만 짬짬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자.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0월 21일 ~ 1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는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10/21	10,000
	보명심	11/15	10,000
	김병석	11/18	10,000
국광사	이순영	11/14	20,000
	지명	11/15	10,000
	공덕성	10/21	20,000
기로스승	수증원	10/21	10,000
	밀공정	10/21	10,000
	법지원	10/21	10,000
	일성혜	10/21	10,000
	사홍화	10/21	10,000
	안주화	10/21	10,000
	진일심	10/21	10,000
	시각화	10/21	10,000
	최상관	10/21	10,000
	연등원	10/21	10,000
	자선화	10/21	10,000
	승효제	10/21	10,000
	주신제	10/21	10,000
	총지화	10/21	10,000
	덕화사	법상인	11/14 20,000

동해사	송인근	10/21	10,000
-----	-----	-------	--------

동해사	법선	10/21	10,000
	김진화	11/2	10,000
	송인근	11/20	10,000
만보사	김정희	10/21	10,000
	이종구	11/11	7,000
	김정희	11/20	10,000
밀인사	경복원	11/10	10,000
	박길선	11/11	10,000
	덕광	11/11	20,000
밀행사	행원심	11/12	10,000
	이은별	11/12	10,000
	반야심	10/31	10,000
법천사	인선	10/21	10,000
	정계월	10/21	10,000
	박미경	10/25	10,000
벽룡사	승원	10/21	10,000
	묘원화	10/21	10,000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11/1	80,000
	하명순	10/25	10,000
	무명씨	11/1	10,000
사원명무기명	박필남	11/17	10,000

삼일사	모홍	11/20	10,000
	신천호	10/25	10,000
	이태운	10/25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박현정	10/25	20,000
	나석원	10/26	50,000
	성화사	신정희일동	10/30 100,000
수인사	법상	11/14	20,000
	시법사	해광	11/12 10,000
	실보사	박성호	11/5 10,000
실지사	황성녀	10/30	10,000
	정우석	10/30	10,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10/28 8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10/28	80,000
	양지제1복지관	서영주	10/28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10/25 80,000
자석사	도우	11/11	10,000
	지현	11/11	1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10/28 80,000
정각사	탁상달	10/25	10,000

정각사	안한수	11/8	10,000
	노점호	11/14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11/4 80,000
총지사	록경	10/26	20,000
	김정환	11/3	10,000
	유은혁	11/7	10,000
	신현태	11/11	10,000
	백귀임	11/11	10,000
	최영아	11/12	10,000
통리원	남혜	10/21	10,000
	김명석	11/7	10,000
	박대영	11/1	10,000
화음사	박대성	11/1	10,000
	무명씨	11/4	10,000
	송영근	11/8	10,000
	송하나	11/9	10,000
	박옥자	11/10	10,000
	송호영	11/19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11/11	8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관성사	우인	11/22	10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㉔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법화경’으로 본 식물과 농업 이야기

골고루 내리는 단비는 사방에 똑같이 오며 온 국토에 흠족하게 한량없이 내려서 산과 내, 험한 골짜기 깊은 데서 나서 자라는 초목과 약초와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 온갖 곡식의 싹, 사탕무, 고구마, 포도, 비를 맞고 물기를 받아 풍성하게 모두 자라고 메마른 땅이 고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무성한 저 구름에서 내리는 한 맛의 비를 맞아 풀과 나무, 수풀들이 분수 따라 축여지는 까닭이네.

- 『법화경』제5장 <약초유품(藥草喻品)>

『법화경』은 대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약초유품>에서는 세상에 다양한 약초가 있지만 이렇듯 무성한 식물이 모두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서 자라는 것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비와 같은데 성문-연각-보살이 각각 다른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근기에 따른 것이 마치 약초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설명한다. 물론 『법화경』 <약초유품>의 비유는 대승의 큰 나무가 되라는 가르침이긴 하지만 식물을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로 표현한 것은 식물의 가치를 제고(提高)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물국회’, ‘식물인간’ 등 이런 표현 속에는 식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있다. 하지만 『법화경』 <약초유품>에 나오는 식물은 약초나 곡식이나 식량으로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법화경』의 표현처럼 식물은 우리에게 약초가 되어서 질병을 치료하고 곡식과 갖가지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해 주는 고마운 존재다. 이산 해연 선사 발원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

“모진 질병 돌 적에는 약풀 되어 치료하고, 흥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

제하되, 여러 중생 이익한 일 한 가진들 빼오리까.”

식물과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진화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식물과 곤충의 공생이다. 식물은 꿀을 제공하고 곤충은 그 꿀을 먹고 꽃가루받이를 통해 수정을 시켜 식물이 열매를 맺고 후손을 생산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된다. 동물은 그 열매를 먹고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또 동물의 배설물은 식물에 좋은 양분이 된다. 이렇게 식물과 동물의 공생을 통해 지구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생명이 살기 좋은 별이 된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식물도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식물을 자를 때 소리를 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동물은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반면 식물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다. 식물이 동물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동물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 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정말로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한 사진을 빠르게 돌려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수백 년 이상 사는 식물의 오랜 생명력을 생각하면 100년 안팎을 사는 인간으로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므로 식물이 더 열등하다고 보는 시각은 지금이 인간 동물 중심적인 생각일 뿐이다.

우리가 아플 때 약으로 사용하는 약초는 한의학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식물에서 그 원료를 추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한다.

또한 인간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풍부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게 되었고, 뛰어난 인류 문화를 이루고 향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급자족형 농업에서 상품 판매형 농업으로 변화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크고 보기 좋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게 되고, 종자 개량과 유전자 조작으로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땅의 생명력을 저해했다. 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문제는 토양 오염을 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강과 바다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었으며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화학비료의 주성분인 질소와 인은 지난 수십억 년간 지속되어 온 지구의 물질 순환시스템을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질소와 인의 과다로 토양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이 심해졌고, 근해에 식물성 플랑크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을 폐색음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의 약 4분의 1은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 활동의 결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료 사용량이 많아 OECD 국가보다 최고 223배 높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120배 많다.

농약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현재 사용되는 살충제와 제초제 등에는 대부분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포함된다. 환경호르몬은 체내에 축적돼 인체의 호르몬 대사에 직접 관여하면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해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따라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농업을 장려하고 소비자도 보기에는 좋지만, 영양결핍인 화학농 농산물이 아니라 못생겼지만 영양이 알찬 유기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업을 변화시켜야 한다.

땅이 건강하면 『법화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름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도 온갖 약초와 크고 작은 나무와 곡식이 풍성하게 자란다.

남해 정사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차크라

11월 월초불공, 토요일 대중불공을 마치고 서원당에서 내려오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각자님이 밀교에 관해 알고 싶다며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다. 총지종과 밀교에 관해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니 자신은 중국의 위험지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밀교의 차크라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차크라 수행을 배워 병석에 계신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고 싶다고 하였다. 각자님에게 차크라 수행법은 후기 밀교인 탄트라불교의 수행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총지종은 중기 밀교의 수행법인 삼밀관행수행법을 하는 종단이라고 말씀드리며, 매일 10시에 서원당에서 대중불공을 하니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전했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수레’라는 뜻으로, 인간 신체의 여러 곳에 있는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정신의학적 견지에서 정확하게 규정될 수 없는 인간 정신의 중심부를 말한다. 힌두교와 탄트라 불교에서 행해지는 신체 수련(요가)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기능이 합쳐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차크라 수행은 인간의 신체에는 약 8만 8천 개의 차크라가 있으며 물라다라 차크라(회음), 스바다스타나 차크라(음부), 마니푸라카 차크라(복부), 아나하타 차크라(가슴), 비슈다 차크라(목), 아즈나 차크라(미간), 사하스라라 차크라(정수리)의 일곱 군데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을 활성화하는 수행이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주인공 닥터 스트레인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외과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수전증을 가지게 된다. 좌절해 있던 스트레인지는 걸어 다니는 게 불가능한 척추 부상을 당하지만, 다시 걷는 것에 성공한 남성에 대해 듣게 된다. 그 남성을 찾아 네팔 카트만두를 찾아가고 카마르 타지를 찾아 해매 그를 만나게 해 주고, 에이션트 윈은 차크라 에너지의 힘을 이용해 닥터 스트레인지의 손을 치료하게 된다.

거대한 나선은하들로부터 수천 광년을 건너,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무수히 많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회전하는 수레와 같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회전하는 작은 수레로 만들어진 꽃, 나무, 식물, 그리고 사

람 모두는 지구라는 거대한 수레를 탄 채 자신의 궤도를 돌며 우주를 통과한다.

지구의 중심에는 핵이 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핵이 회전하게 되고, 금속 성분인 핵이 회전하게 되면 전기적 자기장을 가지게 된다. 이 지구 자기장은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 또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전류라는 전기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사람의 모든 세포는 이 생체전류를 주고받음으로써 유지되고 변해간다. 생각 또한 뇌세포의 생체전류를 주고받음이고, 우리가 말하고 숨 쉬고 행동하는 것 또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생체전류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심전도, 근전도 검사도 이 생체전류의 흐름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내면 중심부에는 차크라라고 불리는 일곱 개의 바퀴처럼 생긴 에너지 센터가 돌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생명력의 교차로인 차크라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일곱 개의 차크라가 함께 모여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을 통합하는 심오한 공식을 창조한다. 차크라는 완전한 시스템으로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의 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뇌세포를 비롯한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생체전류가 활성화된다. 생체전류가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는 광체가 나는 것이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창	교	절		수	미	산	정		초
호		대			나		사	슴	록
지		다	이	어	리		각		동
	허	수				형	형	색	색
여	물		스	피	드	광		동	
	불			로		등		저	
선	공	후	사					고	
견		안		운		마	무	리	
지		무		돌	파	구			요
명	상	치	료			간	식	거	리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원장 김 채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수인사, 2024 김장김치 이웃 나누기 독거노인 50박스, 동사무소에 40박스 기부



포항 수인사(주교: 범상 정사)가 12월 1일 수인사 신정회, 봉사단체 수인회와 함께 ‘2024 김장김치 이웃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총 750포기를 담은 이번 대규모 김장에는 교도를 비롯한 봉사자 20여 명이 동참했다. 김장김치는 각각 50박스와 40박스로 나뉘어 포장되어 수인사 관내 중앙동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기부되었다.

수인사는 겨울철 대표적인 자비나눔 행사인 ‘김장김치 이웃 나누기’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사원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한 수익금을 ‘김장김치 이웃 나누기 행사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범상 정사는 “봉사자들이 맛과 건강을 정성으로 담았다. 전달받은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의 손길이 되겠다.”고 밝혔다.

종단 종무원, 베트남 3박5일 관불 나트랑, 달랏 일대, 죽림선원 등



불교총지종 통리원 소속 교무원들이 지난 11월 23일부터 3박 5일간 베트남 나트랑과 달랏 일대에서 관불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달랏 죽림선원 일주문 앞 참가자 기념 촬영 모습

부산 정각사 ‘자비회’ 새 임원진 구성 회장 황영순, 총무 서봉희·김점남, 감사 민순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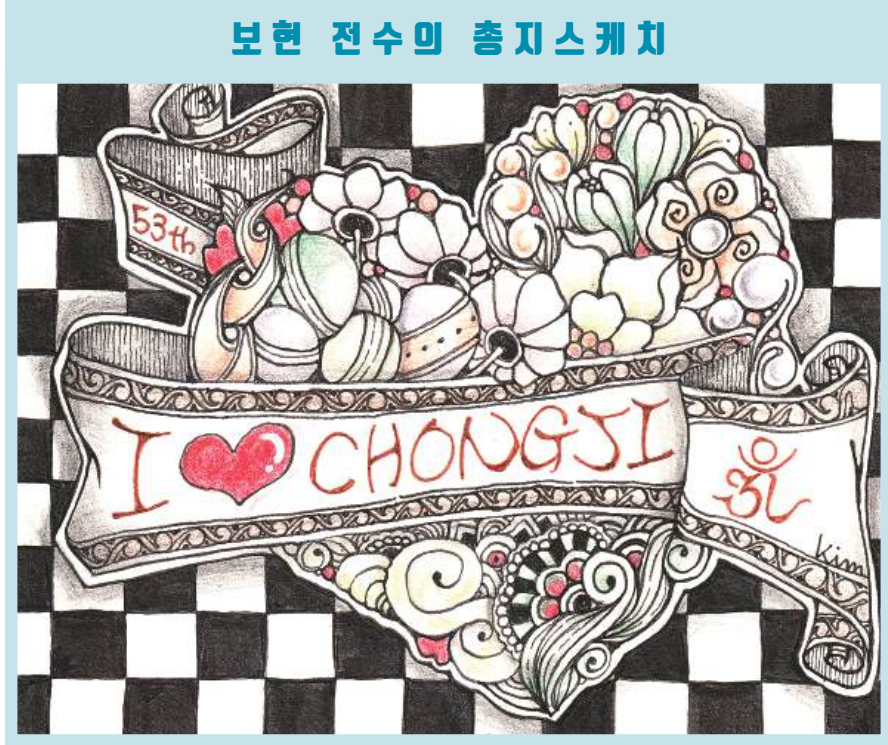
왼쪽부터 황영순 회장, 백일숙 전 회장은 “28년 동안 자비회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운영이 잘 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새 회장님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됐다.”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27년간 총무로 고락을 함께 해주신 이영순 보살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부산 정각사 ‘자비회’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됐다. 자비회는 지난 11월 2일 모임에서 감사를 역임한 황영순 교도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서봉희 전 총무는 연임됐으며 새로운 총무로 김점남 교도, 또 감사로는 민순애 교도를 선임했다.

퇴임사에서 백일숙 전 회장은 “28년 동안 자비회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운영이 잘 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새 회장님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됐다.”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27년간 총무로 고락을 함께 해주신 이영순 보살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자비회는 정각사의 모임이지만 종단을 대표할 만한 ‘자비회사’의 요람이기도 하다. 매해 모자가정 돌봄센터를 비롯한 복지관에 보시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매월 교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의 천수천안이 되어주고 있다.

신임 황영순 회장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그동안 백일숙 회장님이 열어놓은 길을 잘 따라가겠다.”며, “정각사뿐만 아니라 자비회사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분과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홀야호사르사’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 명	우편번호	주 소
통 리 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서울경인교구		
관 성 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밀 인 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법 천 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벽 통 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시 법 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실 지 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정 심 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지 인 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총 지 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충청전리교구		
만 보 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법 황 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혜 정 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합곡로131번길5 (내덕동)
홍 국 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지동1가)
중 원 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대구경북교구		
개 천 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건 화 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국 광 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단 을 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선 립 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수 계 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정길36-19
수 인 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승 천 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제 석 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부산경남교구		
관 을 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단 향 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덕 화 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밀 행 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법 성 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삼 밀 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영선동1가)
성 화 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교로78번길 17(보수동1가)
실 보 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운 천 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일 상 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자 석 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정 각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화 을 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동 해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뉘엿뉘엿 가을의 아쉬움 신심으로 달래다

전국 사원서 관불행사, 동해중학교도 삼사순례



수인사



벽룡사



단음사



동해중

늦게 찾아온 가을, 그래서 더욱 짧게만 느껴지는 계절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관불행사가 전국 사원에서 진행됐다.

포항 수인사(주교: 범상 정사)는 11월 2일 부안 내소사, 고창 선운사로 떠났다. 나들이에서 나눌 공양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일찌감치 관불을 준비한 교도들은 대형 버스에 몸과 기대를 함께 실었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창건된 전통사찰로 일주문에서부터 천왕문에 이르기까지 700여 그루의 전나무 숲길이 유명하다. 대웅전 앞 1천 살 나이의 느티나무는 오랜 역사의 대가람을 상징하고 있다. 선운사는 그 앞으로 흐르는 도솔천에 단풍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유명한 곳이다. 교도들은 차분한 정취를 즐기며 변치 않을 불연을 이어 나갔다.

같은 날 벽룡사(주교: 승원 정사)도 정기 산행의 일정에 맞춰 오대산 월정사를 향해 출발했다. 교도들은 가는 도중 벽룡사 도반을 찾아가 반가움을 나누기도 했다. <관련 기사 9면>

단음사(주교: 일진 정사)는 11월 12일 우리 사원인 포항 수인사를 참배하고 영일대를 아우르는 바닷가 드라이브에 이어 죽도 시장을 찾았다. 수인사 서원당과 특약전에 인사를 올리고 사원에서 손수 준비해 내어준 다과와 음료를 마시며 법담을 나눴다. 진여전수는 “고령의 보살님들을 위해 가까운 수인사로 오게 됐다.”며 “바쁘신 가운데 환대해 주신 수인사 스승님들과 교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학부모 불자회인 반야회(회장: 조지은)도 11월 16일 지도법사 범선 정사와 자성 전수, 그리고 김진화 교감을 비롯한 교직원과 함께 산정 겹외사, 화순 쌍봉사와 운주사를 다녀왔다. 예로부터 각기 다른 지역 사찰 세 곳을 순례하여 자신의 액운과 죄업을 씻으면 복이 온다고 해서 불교계에서는 삼사순례를 이어왔다. 반야회는 해마다 이맘때면 삼사순례를 통해 자녀와 학교 발전을 위한 기도에 정진해 오고 있다.

시범사(주교: 해광 정사)는 11월 17일 광명시 금강정사로 관불에 나섰다. 시범사는 매달 한 번 사원 인근 지역의 사찰을 방문하며 참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금강정사는 해광 정사가 청년회 시절 불심을 키워왔던 곳이다. 다음 달에는 김포 지역의 사찰을 순회할 예정이다.

부산 정각사 각자들의 모임 단월회(회장: 강경중)도 11월 24일 자성일 법회 후 사원이 제공한 차량으로 양산 일대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가을빛에 젖은 자연을 만끽하며, 참석자들은 더욱 깊은 법연을 물들여 갔다.

편집=박재원 기자



시범사



정각사 단월회



화령 정사의
담마빠다 토티보기

진리의 행복

진리를 즐기는 이는 언제나 행복하다

현자는 성인이 가르친 진리 속에서

언제나 즐겁게 안락함을 누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언제나 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어긋나게 말하며 어긋난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진리에 바탕을 둔 삶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진리를 좇아 불문에 귀의한 여러분 초심을 변하지 마십시오.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